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년 3월 28일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업스테이트의 중저소득 뉴욕주민들이 세금 신고서를 무료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돕기 위한 이동 지휘 센터 배치

소득세 마감일 전 최종 날들에 주지사는 62,000 달러 미만 소득자들이 세금을 신고하도록 돕기 위한 팀들을 배치합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그가 적격 뉴욕주민들이 세금 신고서를 무료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돕기 위한 금융서비스부의 이동 지휘 센터를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팀들은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업스테이트 뉴욕 전역의 여러 장소에 들릴 것입니다.

“뉴욕주민들이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돕기 위한 대면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그 절차를 가능한 한 쉽고 간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본인은 모든 적격 뉴욕주민들께서 이 무료 서비스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납세자들이 금년 4월 18일 마감일에 앞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편리해졌습니다”라고 **NYS 과세재정과 커미셔너 Jerry Boone**이 **말했습니다.** “세무부 자원봉사자들이 이동 지휘 센터와 함께 출장 가서 납세자들이 사용자 친화적 세금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소프트웨어를 단계별로 진행할 때의 질문에 답변할 것입니다.”

연방 조정 총 소득이 62,000 달러 미만인 납세자들은 연방 및 주 소득세 신고서를 무료로 작성함으로써, 작성자를 고용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무부 자원봉사자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것입니다.

1월에 세무 신고 시즌이 열린 이래 세무부는 도서관 및 비영리 단체들과 제휴하여 **Albany, Binghamton, Buffalo, Rochester, Syracuse** 및 **Utica**의 장소들을 포함한 **85개소**에서 수 천명의 납세자들에게 무료 세무 지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동 지휘 센터를 배치함으로써 **Cuomo** 지사는 무료 신고 지원 장소망을 주 전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동 지휘 센터 또는 세무부의 무료 장소 중 한 곳을 방문할 수 없는 62,000 달러 미만 소득의 납세자들은 tax.ny.gov에서 무료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연방 및 주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자 친화적인 소프트웨어는 납세자들에게 작성 프로세스를 안내하면서 오류를 체크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택이나 이동 지휘 센터에서 e-신고함으로써 납세자들은 본인에게 자격 있는 모든 세액 공제를 확실히 받을 것입니다. 세액 공제는 납세자에게 수 천 달러의 절약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가족의 경우 근로소득 세액 공제는 8,000 달러나 될 수 있습니다.

이동지휘센터 스케줄

- 4월4일 – Jamestown
- 4월5일 – Alfred
- 4월6일 – Oneonta
- 4월8일 – Watertown
- 4월9일 – Plattsburgh

시간 및 구체적 장소는 세무부의 웹사이트 tax.ny.gov/fsa에 나와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